

★ ★ ★
제2219호

2024.4.7
부활 제2주일
곧, 하나님의 자비 주일

저학년 교재
바로 가기



말씀 찾기

제1독서: 신약 - 사도행전 4,32-35

제2독서: 신약 - 서간 - 요한의 첫째 서간 5,1-6

복 음: 신약 - 복음 - 요한 20,19-31

★ 오늘의 핵심 말씀 ★

“○○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참조)

Visio Divina

하나님의 자비 주일



<JEZU UFAM TOBIE>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아돌프 힐라, 1943,
크라쿠프 자비의 성모 수녀원 경당, 폴란드

부활 제2주일인 오늘은
부활 팔일 축제의 마지막 날로
하나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며,
특히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자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의심을 버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하루를 살아 봅시다.

말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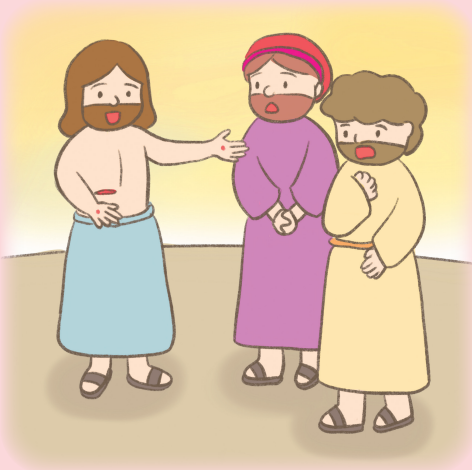
Key word: 자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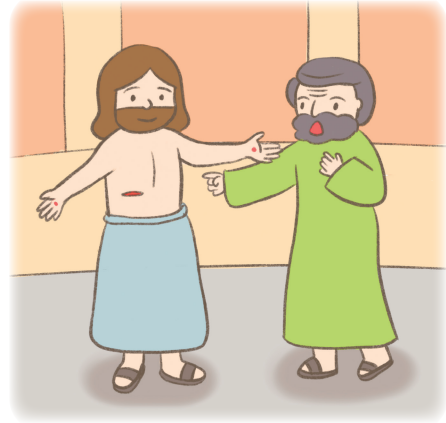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것은 좋아야 하고, 내 것만 챙겨야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모두 함께 나누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어 **부활의 참 의미**를 보여주셨듯이, 사도들은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신자들이 가져오는 돈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나눕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삶**을 살며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신자들도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뒤, 오늘 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마주하시고, **용서의 권한을 주시며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토마스는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토마스는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을 직접 만져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드레 뒤,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 보라고 하시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활은 의심을 버리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받아들이는 우리는 토마스처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당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냐?'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 주시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분을 시험합니다.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청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자리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실천하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는지 생각하여 써 봅시다.)
저는 _____ 이(가) _____ 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저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번 주
실천사항

'아동 노동 착취'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의 기도'를 바쳐 보아요!

○ 모바일 체크

<모바일 체크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됩니다!>

*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응모하기

1.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가없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며, '부활 제2주일'과 연관된 말이기도 하지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하마 2면 참조)

- ① 온유 ② 평화 ③ 인내 ④ 자비

2. 1독서 사도행전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 소유하였다."(사도 4,32)라는 내용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공동으로 ② 집안 별로
③ 함께 ④ 나누어

3. 2독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 힘겹지 않습니다."(1요한 5,3)라고 말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명령 ② 가르침 ③ 계명 ④ 말씀

4. 오늘 복음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뵈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이라고 고백한 사도는 누구일까요?

- ① 베드로 ② 토마스
③ 안드레아 ④ 야고보

3/17 당첨자

남산성당 2학년 김수원(미키엘), 장유대청성당 3학년 한승이(프란치스카), 범서성당 4학년 윤세아(엘리아), 밀양성당 5학년 정세아(스텔라), 덕계성당 6학년 김시울(토마스)

3/17 당첨자 1. ① 2. ③ 3. ② 4. ③

○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대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분 자비의 표징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 2022년 4월 24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강론 중에서 -

교황님께서서는 우리는 늘 하느님으로부터 '용서와 평화'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약함보다 하느님의 따뜻한 포용을 먼저 기억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일상 안에서 매일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삶,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닐까요?